

# 주중 FOMC·CPI 동시 발표... “환율, 1400원까지 고려해야”

고용지표 시장 예상치 웃돌아  
금융권, 연준 금리 시그널 주목  
일각선 강달러 지속 전망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7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 시장에서 오는 12일 예정돼 있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5월 CPI(소비자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강달러 현상과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 ◆ 점도표 관심집중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FOMC 회의가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 시간으로 13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발표된다.

CME(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연준이 이번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할 가능성을 99.4%로 집계했다. 연준은 지난해 7월부터 금리를 동결해 왔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FOMC 회의 이후 공개될 점도표에 모아지고 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올해 연방기준금리 중앙값을 연 4.5~4.75%로 제시해 연내 금리를 0.25%포인트(p)씩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던 기존 전망(지난해 12월)을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선방하고 고용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 횡수를 1~2회 인하로 선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OMC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인 12일에는 미국의 물가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5월 CPI가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3.4% 상승해 지난 4월(3.3%)과 비슷할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3.5% 상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1.50포인트(0.79%) 내린 2701.17에 장을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7포인트(0.17%) 하락한 864.71,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70원 오른 1376.0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승해 전월과 같거나 소폭 하락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CPI지수는 연준이 설정한 목표치(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7월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한다는 증거가 2~3개월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연말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우리의 장기 연간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해지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 주식·외환시장 불안정 심화

CPI와 FOMC 결과를 앞두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점도표에서 나타날 금리인하 전망 조정 폭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인 오전 9시 15분 전 거래일 대비 16.1원 오른 1381.4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31일(1384.5원) 이후 5거래일 만에 1380원대로 재진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CPI가 둔화되면서 1345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104.9포인트로 전일 대비 0.8포인트 올라 단번에 이달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식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45포인트(0.79%) 하락한 2701.22,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7포인트(0.17%) 하락한 864.71로 장을 마감했다.

### 시장, 5월 CPI 전월 수준 전망 7월 금리인하 불가 전망 우세 “코스피 예상범위 2580~2700”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는 지난 7일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지난달보다 27만 2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4월 증가 폭(16만 5000개)과 시장 예상치 19만개를 크게 웃돈 수치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55%로 점쳤는데, 이는 고용 보고서 이전의 75%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이다. 7월 금리 인하 확

률은 9%까지 떨어진 상태다.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원화 약세를 비롯해 국내 증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에 따라 환율 상승 폭도 커질 수 있다.

먼저 미국의 통화정책 탓에 미 달러화 강세보다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140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정원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을 1400원까지 상승(원화 가치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연준의 금리인하를 앞당길 만큼 미국 지표가 둔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달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FOMC 회의 후 공개될 점도표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 부응한다면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기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금융시장 예측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코스피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상 범위를 2580~2700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정부, 근로자 생계비 등 2800억 규모 재원 확충

올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임금체불액이 늘어나자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계비 용자사업 확대 등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훈련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생활자금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용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용자 지원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용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용자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훈련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8만 8000명 규모 지원대상에 4만 1000명을 추가하고, 총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투입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영양군**  
YEONGYANG-GUN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가 있는 ~ 생활!